지역 소식통

김제시영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세대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무주택 저소득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운영 중인 김제시영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영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36㎡, 총 2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186만9,000원~242만2,400원, 월 임대료 3만6,750원~4만5,780원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나은 정주 여건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월 8일) 기준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 7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김제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GGG 릴레이 캠페인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5일 백산면 G5스테이션 아파트 주민 10여명과 봉사자 20여명이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GGG(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릴레이캠페인을 실천하기 위해 나무식재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GG(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릴레이 캠페인'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봉사자와 마을주민이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의 고유 프로그램이다.

활동에 참여한 마을 주민은 "탄소중립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번 활동으로 실천 가능한 활동을 경험했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참여하고 실천하며 탄소중립문화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4월 김제 곳곳 문화체험 행사 다채

20~21일 개최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등

꽃 구경, 사람 구경 등 여행하기 좋은 계절 4월을 맞아 김제시에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8일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과 21일 광활면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제14회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가 열린다.

광활 햇감자 축제에는 감자캐기 체험, 햇감자 맛장터 등 알찬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또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국가지정 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산신대제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망해사 산신대제는 김제지역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와 함께 승무, 바라춤 등 다양한 예술공연을 함께 진행하며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7일과 28일에는 김제 모악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앞서 26일 오후 1시에는 모악산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전국노래자랑 김제시편이 녹화된다.

시 관계자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 4월을 맞아 김제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김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난 5일 중회의실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완주 공동체공간 수작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지역 쌀 활용 '숨은골 약주' 최고상… 1월에는 '탁주'로 대상

완주의 술이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었다.

8일 완주군은 농업회사법인(주) 공동체공간 수작(대표 이진영)이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주류품평회 제11회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우리술 약주·청주 전통주류 부문에서 '숨은골 약주'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를 통해 주종별 최고의 술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대 주류 품평회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218개 업체의 1,061개의 브랜드가 출품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숨은골 약주'는 지역의 쌀을 활용해 누룩과 물로만 빚어냈다.

두 번 발효한 이양주로서 깔끔한 담백함을 담았으며, 정갈하고 맑은 향기를 위해 10개월 이상 숙성했다.

이진영 수작 대표는 "수년간 연구한 우리 술이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술을 지속해서 연구, 개발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은 농가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다"며 "지역특산주 소비 확대로 완주쌀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체공간 수작은 올해 1월에도 '숨은골 탁주'로 참발효어워즈 2024 막걸리(탁주)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11회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숨은골 약주'가 우리술 약주·청주 전통주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제시,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MOU 체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 상호협력 약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일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한동엽)이 김제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대표 이수정)과 요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가 모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요촌마을조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앞두고 있다.

시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요촌마을조합에 사회적 경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약속했다.

또 요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요촌마을조합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지원을 약속했다.

요촌마을조합 한동엽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우리 요촌마을조합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김제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제시 '요촌마을조합'은 지난 3월 24일 김제하나새마을금고와 MOU 체결을 통해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신협, 농협 등 금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 유관 기관 및 단체들과의 적극적으로 MOU 체결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관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 출범

총 12명 구성…주요업무 공유, 도서관 발전 방향 논의

완주군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꾀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5일 중회의실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의원, 도서관, 교육, 문화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공개모집을 통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도서관 발전과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했다.

올해 완주군은 △10만 완주 시대, 도시형 공공도서관 운영 △체류형 도서관 인프라 확충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도서관 실현을 주요 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업무역량을 집결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문화기반시설 중 주민선호도가 가장 높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고견을 반영해 완주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한다

500만원 이하 기계, 이달 30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기종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5종(관리기, 농산물세척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읍면심의, 2차 군심의를 거쳐 10월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받은 신청을 바탕으로 올해 보조금 2억 원을 투입해 관리기 등 6종 약 160대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매 부담을 낮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